

원로과학기술자가 걸어온 한평생

石泉 金 東 一 曁



부산避亂 공대생들에 실험교육 강행

한국전(戰)은 내가 초대 서울대 공대 학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평교수로 있을 때 터졌다. 6월 25일은 일요일로써 날씨가 무척 쾌청했다. 이날 새벽 나는 평소대로 엽총을 가지고 서울대 공대 근처 논두렁을 따라 오르며 뜸부기 사냥을 하고 있었다. 엽총은 광복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고등학교(佐賀) 동창이었던 일본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 사냥에 취미를 갖게 되었다.

뜸부기 사냥중 6·25맞아

뜸부기 사냥에 몰두해 있는데 갑자기 쿵쿵하는 대포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일까 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데 군인을 가득 실은 차량대열이 지금의 육군사관학교 쪽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이었다. 다급

해져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와 라디오를 틀었다. 행진곡과 함께 북한군이 남침했으나 국군이 반격해서 곧 물리칠 것이니 안심하라는 뉴스가 반복되고 있었다.

돌아가는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있는데 저녁무렵 학생회 간부인 차경모(車敬模)군이 전화를 걸어왔다. 차군은 흥분된 어조로 수백명의 학생이 학교를 사수하려고 모여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평교수였기 때문에 학생간부들이 나에게까지 학교사정을 알려야 할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나도 학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입장이 못되었다.

당시 학장이었던 이승기(李升基)교수는 전부터 사상이 의심스런 점이 있었다. 그래서 우익 학생들이 학장을 체처두고 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물어본 것이었다. 특히 나와 동향이고 평양고보 후배인 차군은 나를 무척 따르고 있었다.

나는 학생들을 설득했다. “학생들의 충정과 심정은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맨손으로 중무장한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는 무모한 일이다. 그러니 모두들 해산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워 학교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강경하게 말했다. “지금부터의 내 말은 명령이다. 모든 학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얼마 후 차경모군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내 말을 듣고 일부 학생은 흩어졌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강경파 학생들이 남아 학교를 사수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들을 다시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루 밤을 거의 뜯눈으로 지냈다. 다음 날도 방송은 국군이 용감히 싸워 적군을 격퇴하고 있다는 뉴스 뿐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뉴스와 같지 않음을 여러 정황으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어렵게 트럭 한대를 구했다. 그러나 트럭은 군에 징발되어 버렸다. 다시 하루 밤을 지냈다. 새벽 무렵 굉장한 폭음이 들려 눈을 떴다. 적의 포탄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층 불안해졌다.

아침에 20년 연하인 막내 남동생 동오(東五)가 거리에 나갔다가 적 탱크가 용산역 쪽으로 질주하는 것을 보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새벽에 들려온 요란한 폭음은 한강다리를 폭파할 때 난 굉음이었다.

만사위 邊時敏 교수와 피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갔다. 그래서 우선 북한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막내 남동생 동오와 수도고녀에 다니고 있던 과년한 둘째딸과 만사위 변시민(邊時敏) 서울대 교수 그리고 차경모군과 함께 피난길에 나섰다.

처음 한강쪽으로 나가 보았다. 이미 다리는 끊긴 상태였다. 마포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침 사람들을 가득 실은 나룻배 한 척이 막 떠나고 있었다. 동오가 짹짜게 만선인 배로 뛰어 올랐다.

동오는 여의도 나루터에서 사공을 설득해서 배를 되물고 왔다. 나룻배가 마포강가에 닿기가 무섭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룻배가 사람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기우뚱거렸다. 이러다간 모든 사람이 강 한가운데서 물귀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몰래 숨겨 갖고 간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랬더니 뱃사공을 비롯한 주위의 사람들이 기겁을 해 달아났다. 우리 일행은 널판지를 이용해서 배를 저어 가

스로 한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저녁무렵이 되었다. 우리는 철길을 따라 밤을 새워 부지런히 걸었다. 아침이 흰히 밝아올 무렵 병점역을 지나 오산역 부근까지 갈 수 있었다.

모두들 발이 통통 불어터졌다.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산역쪽에서 철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막차가 병점에서 떠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불어튼 발을 달래며 병점으로 갔다. 사람들은 수원역이 북한 전투기에 의해 폭격을 받았다고 했다.

병점역엔 기관차가 없는 객차가 몇량이 연결돼 있었는데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 가까스로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차지했지만 언제 떠날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초조한 가운데 10시간쯤 지났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관차가 나타나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래서 대전역까지 올 수 있었다.

이승만대통령이 대전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졌다. 나는 대통령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후 이대통령이 자동차편으로 대전도청에 도착했는데 곧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대전역으로 나가 부산행 기차를 탔다.

동오는 우리를 부산 광복동에 있는 뉴욕제과점 주인 집으로 안내했다. 이 집 주인은 부산에서 3년제 공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오와는 같은 카톨릭신자로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집 2층에서 여러명의 카톨릭신부들과 함께 지내게 됐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비록 피난민 신세였지만 거쳐할 방이 있고 정부로부터 봉급도 나와 어려움 없이 지냈다.

부산서 國防科學研 고문말아

부산에 있는 동안 우연하게 김창규(金昌圭)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그는 육사출신으로 서울대 공대 파견생으로 기계과를 졸업한 사람이었다. 이같은 인연으로 해서 나는 국방과학연구소 고문이 되었다. 김창규씨는 후에 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

나는 인천상륙작전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국방과학연구소 요원들이 평양을 간다는 소식이 들렸다. 귀가 번쩍했다.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난 것이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가족들의 생존을 확인한 후 평양으로 들어갔다. 그때의 감격이야말로 길이길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평양에 들어가니 시내에는 많은 집들이 비어 있었다. 우리 요원들은 빈 집에 여장을 풀고 연락처로 정했다. 나는 특별히 국방과학연구소 요원들과 함께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수일 후고향을 찾았다.

평남선(平南線)의 진지(眞池)역에서 4km 떨어진 곳에 있는 고향 새양당골은 옛 모습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었다. 친척들을 찾아 인사를 했다. 마을 청년들은 나를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고향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평양으로 돌아와 옛 친구를 만나 그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처로 돌아왔더니 국방과학연구소 요원들이 모두 이동하고 없었다. 나는 외톨이가 됐다.

이곳저곳 수소문하고 있는데 중공군이 참전해서 밀고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평양의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피난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도 피난을 서

돌려야 했다.

동행했던 요원들을 잃었으니 단독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 차편이 없을까하고 찾아보니 마침 숙소 부근에 트럭이 한대 있었다. 트럭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까닭을 물으니 휘발유가 떨어졌다고 했다.

트럭 주인은 휘발유만 구해오면 태워 주겠다고 했다. 마침 국방과학연구소 요원들이 머물다간 집 안마당엔 휘발유가 가득 들어있는 드럼통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기쁨 덕분에 트럭을 얻어 탈 수 있었다.

그래서 트럭으로 대동강을 건너 선교리까지 왔다. 국군이 선교리에 검문소를 차리고 피난민을 선별하고 있었다. 통행증이 있는 사람만 남으로 내려보내고 없는 사람은 되돌려 보냈다.

나는 이들에게 나의 신분을 누누이 설명했지만 증명서가 없으니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평양에 있는 사단 사령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니 그리로 가서 말하라는 것이었다.

北進땐 평양가서 고향방문도

사단 사령관은 백두산호랑이로 이름을 떨치던 김종원(金宗元)장군이였다. 하는 수 없이 평양으로 발길을 돌렸다. 대동강을 건너려하니 이곳 역시 가로막고 있었다. 도강증이 없으면 평양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서성거리고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한 국군장교가 서울공대 출신이라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장교는 지금 평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나는 구세주를 만난듯 기뻐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차를 타고 평양의 사단

사령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단 사령부까지는 들어갔지만 증명서를 얻기란 쉽지 않았다. 남으로 내려가는 증명서는 사령관인 김종원장군이 아니면 아무도 내줄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면회를 신청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마침 나는 이호(李皓)계엄사령관의 명함을 한장 지니고 있었다. 이 명함을 서울서 이호계엄사령관을 만나 받은 것이었는데 그는 동경대 법대를 나온 분으로 나의 4~5년 후배였다. 나는 이호계엄사령관의 명함을 내밀었다.

나는 이 명함 덕분에 김종원사령관을

의하여 반동분자로 몰려 모두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극심한 내 마음의 아픔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그 때 고향을 찾지 않았던것만 못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개성서 기차로 서울로 들어와 가족들을 만났다. 가족들은 북으로 올라간 후 소식이 없자 내가 피랍되거나 죽지않았는지 무척 걱정을 했다고 했다.

서울에 남아있던 많은 교수들이 북한 치하에서 그들에 의해 살해됐는가 하면 피랍되기도 했다. 영어를 가르쳤던 김



▲ 9.28수복 때 찾았던 평양의 대동문 전경

만날 수 있었고 남으로 내려가도 좋은 증명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통편이 문제였다. 기독교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동차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그래서 운송계도 이들과 함께 개성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그후 월남한 고향사람들로부터 내가 고향을 방문하였을 때 나를 환영해 주었던 친구들이 1·4후퇴 때 괴뢰군에

영근(金英根)교수는 피살된 사람 가운데 한분이였다.

또 공과대학 재학생이었던 권석홍(權錫洪), 박영복(朴英福), 이주영(李柱英) 등 많은 학생들이 학도의용군의 일원이 되어 군번없는 군인으로서 어떠한 위로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반면 자진 월북한 교수들도 적지 않았다. 공대학장이었던 이

승기교수가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교수는 북한에서 이른바 「비날론」이란 합성섬유(polyvinilral)를 개발해서 유명해진 사람이다. 이교수는 비날론을 개발해서 김일성(金日成)으로부터 주체 섬유를 개발했다 해서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다가 지난 2월 작고했다.

월북한 이승기교수 '비날론' 개발

그가 개발한 비날론이란 섬유는 실은 이미 남한에서 1959년 부산의 미진화학(주)이 일산(日産) 7톤규모의 공장을 세워 생산에 들어갔으나 시장성이 없어 중단한 것에 불과했다. 이같은 섬유가 북한에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정치노선과 맞아떨어져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남한과 같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서울에 돌아온 며칠 후 이른바 1.4후퇴로 해서 다시 남으로 피난길을 재촉해야 했다. 나는 서울대 공대 섬유공학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던 전민제(全民濟)씨가 마련해준 트럭 한대에 안동혁(安東赫)·이채호(李采鎬)·전풍진(田豊鎭)씨 가족과 함께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나는 1952년 3월 이정기(李廷紀)학장서리가 그만두자 다시 서울대 공대학장일을 맡아 부산의 피난학교 재건을 위해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대 피난학교는 부산의 동대신동에 있었는데 교사(校舍)라 해야 판잣집으로 된 1천평 정도의 가건물로 보잘 것 없는 초라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강의실 4, 중강의실 16, 소강의실 16, 제도실 3, 화학실험실 2, 물리실험실, 금속공학실험실, 학장실, 사무실, 숙직실, 창고 등

을 갖추고 있었다. 부산 피난학교시절 교직원은 58명(교수 14, 부교수 11, 조교수 11, 전임강사 18, 교수조무원 4)이었고 학생은 1천1백38명이었다.

우리 교직원 일동은 전쟁중일수록 사람을 길러야한다는 생각으로 도처에 흩어져 있던 교수와 학생들을 모아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시설이 너무 형편없어 실험실습을 해야하는 이공대 교육에 특히 어려움이 많았다. 17개동의 강의실에 3개동의 실험실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기자재가 없어 실험다운 실험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 제일조병창·대선양조(주) 등의 협조를 받아 실험실습을 했다. 3,4학년에게는 전국 40여개 공장을 지정하여 매학기 5주간씩 실습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습에 학점을 부여하되 대학이 위촉한 공장별 실습지도원으로 하여금 출석률과 실습기능에 대한 평점을 1대 1로 종합하여 보고토록 하였다.

이는 종래 이론에만 치중하였던 기술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는데 공장측으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제도는 1952년 1학기부터 실시하였다.

부산 피난지서 박사학위 취득

한편 나는 1952년 부산 피난시절 서울대학교로부터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는 1950년 초 이미 공학박사로서의 논문이 통과된 것이었는데 6.25로 미뤄졌다가 부산에서 학위수여식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 수여식은 부산대학교 강당에서 행되었는데 이때 나와 함께 전풍진, 원

대상(元泰常·토목공학)교수가 이학박사, 이춘근(李春根·치의학)교수는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학박사 학위 논문이 이학박사 학위로 둔갑한 것은 지금도 그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가끔 후배들이 공학박사가 아닌 이학박사 학위를 딴 이유에 대해 묻는 일이 있는데 그 때마다 아마도 당시 학위령이 개정되어 공학이 이학 속에 흡수된 것이 아닌가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부산에 피난하지 못한 서울 잔류 학생들은 정부방침에 따라 한양대학에서 수업을 받았으며 호남지방 학생을 위해서는 전주에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이 설립되어 각 대학 학생들이 혼합하여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전시연합대학은 1951년 2월에 부산시 초량(草梁)에도 개설되었으며 1952년 5월까지 지속되었다.

서울대학교는 1953년 9월에 서울로 복귀하였지만 공과대학의 본교사는 아직 미군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용두동에 있던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내 임시교사에서 수업하면서 본 교사 명도 시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후 미군이 공능동 캠퍼스로부터 철수함으로써 1954년 8월 공덕리 본 교사에 복귀하였다.

서울 환도후 점차로 사회와 학교가 정돈되어감에 따라 군부(軍部)에서 특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들에 대한 낙오병과 이탈병 등 6·25동란 중의 거동을 엄격히 조사심사하여 복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또 교직원 간에도 도강파(渡江派)니 잔류파(殘留派)니 하는 암암리에 불화가 있었으나 학장인 나로서는 모든 일에 관용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였다. ㉞